



더아이엠씨

빅데이터 넘어 스마트시티까지 영역 확장

‘디지털 전환 중심에서 미래를 예측한다.’

더아이엠씨(대표 전채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SW) 개발, 플랫폼 구축, 컨설팅 분야 전문기업이다. 2003년 창립 후 2013년부터 빅데이터 사업에 집중하며 주력제품 ‘텍스톰(TEXTOM)’을 비롯해 다양한 솔루션 개발과 분석·플랫폼을 구축했다.

2016년 이후에는 빅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올해 창사 20주년을 맞아 ‘더아이엠씨 전환(TheIMC Transformation)’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빅데이터·AI 분야 1위 기업으로 자리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핵심기술은 자연어처리·음성인식·시각지능·이상치 탐지 등 최첨단 빅데이터·AI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분석하며, 적합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서비스로 구현하는 능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대표 솔루션은 ‘텍스톰’과 ‘데이툼(DATOM)’ ‘텍스톰이(TEXTOMi)’ ‘에이아이에듀툼(AI EDUTOM)’ 등이다.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솔루션 텍스톰은 데이터 수집에서 분석·시각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필요한 교수·학생, 기업마케터, 여론 분석이 필요한 공공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 수는 3만명에 육박한다. 올해



전채남 대표



더아이엠씨가 개발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통합온실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텍스톰 론칭 10주년을 맞아 스페셜 버전을 오는 4월 오픈할 예정이다.

데이툼은 통계분석에서 머신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을 웹에서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형 분석 솔루션이다. 공공업무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 GS인증 획득해 품질 우수성을 확인했다.

텍스톰은 경제·패션·콘텐츠 등 각 분야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인텔리전스 서비스이며, 에이아이에듀툼은 AI 교육에 최적화된 학습 플랫폼이다.

더아이엠씨는 주력사업으로 스마트팜·스마트시티·스마트거버넌스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팜의 경우 자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주를 포함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 혁신적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온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최적 온실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병해충 진단·생육·

성숙도 조사 분석 결과를 제공해 디지털 농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최근 창원특례시에 700여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예측서비스를 개발했다. 시내버스에 장착된 노후된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를 대체하고, 시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안전을 강화하는 데 특효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마케팅도 활발하다. 텍스톰 블로그에서는 더아이엠씨 텍스트마이닝 전문인력이 작성한 고품질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상시 발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기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전채남 대표는 “글로벌로 진출, 성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텍스톰의 비전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매출 계획은 60억원 수준이지만 빠른 성장세를 고려해 대항후 3년내 100억원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인드

제조·교통 등 7가지 AI 솔루션 통합 제공

‘시지각(視知覺)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야 글로벌 납버일 기업으로 도약한다.’

4차 산업 분야 융합솔루션을 선도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포인드(대표 이체수)가 추구하고 달성할 비전이다. 2017년 2월 설립, 만 6년만에 AI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을 뽐내며 국내외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체수 대표

포인드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등 DNA 기술에 특화된 영상 분야 빅데이터, 5G, 시지각 AI를 핵심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고객과 시장 수요에 최적화된 응용 소프트웨어(SW)를 개발·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ETRI 연구소 기업 등록,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대, 경운대 등 폭넓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이다.

주력사업은 영상에 AI 기술을 적용,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SW를 개발해 이를 포인드가 자체 개발한 통합 플랫폼인 ‘봄플랫폼(BOM Platform)’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여러 분야에 접목할 수 있지만 봄플랫폼은 우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 솔루션으로 최적화됐다.

봄플랫폼은 자체 개발한 제조·안전·교통 등 모든 분야에 응용 가능한 7



포인드 개발자들이 제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가지 고품질 AI솔루션을 품고 있다. 주변기기와 표준화된 방법으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토털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AI솔루션 가운데 ‘BOM Surveillance’는 CCTV를 통해 침입, 쓰레기, 싸움, 방화, 화재 등 이상행동 및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는 지능형 관계 솔루션이다.

‘BOM Traffic’은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차량 법규위반을 인식하며, ‘BOM Entrance’는 얼굴인식으로 출입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승강기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인식하는 ‘BOM Elevator’, 드론으로 넓은 지역에서 빠르게 원하는 객체나 상황을 인식하는 ‘BOM Drone Inspection’ 등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필수 솔루션이다.

이들 AI솔루션은 그동안 포인드가 국내외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고품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팩토리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구현했다. 기술력과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GS인증 1등급도 획득했다.

AI솔루션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자 시장도 반응했다. 국내에서는 아이네스, 한림기술, 케이엔엘정보시스템, 아주스틸, 대영전기 등에 솔루션을 공급했거나 구축협의를 벌이고 있다. 해외는 일본 소레스트(SOREST), 말레이시아 마이트래픽 등을 통해 솔루션 공급에 나서고 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5년까지 국내의 누적 매출 12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체수 대표는 “대학교수 시절 경험한 산학협력 활동이 회사 성장에 큰 발판이 됐다. 협력할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많은 기업과 혁신기관, 대학과 손잡고 노력한 결과 봄플랫폼이라는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포인드(AI ND:For Industry)라는 회사명처럼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지역 한계를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고 극복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더텍

디지털 활용 인지장애 치료·뇌 건강 케어

인더텍(대표 천승호)은 인류의 아름다운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돕기 위한 최적화된 디지털 치료 및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고도화된 인지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통해 8억명 이상 인지 분야 수요군을 케어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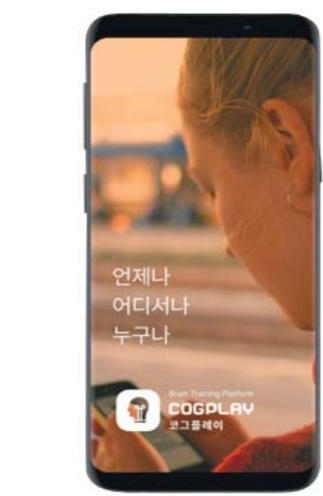


천승호 대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치매 및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군 등을 치료·케어하는 최적화 디지털 인지 치료기기 ‘아이어스(EYAS: EYE-Ear-Attentions-System)’와 포괄적 뇌건강 케어 솔루션인 브레인 트레이닝 플랫폼 ‘코그플레이(COGPLAY)’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의료 분야 IT 강소기업이다.

인더텍 헬스케어분야 특하는 23건이다. 핵심 특하는 아이-링크 시스템(EYE-LINK SYSTEM)이다. 아이-링크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사용자 시선 정보와 인지훈련 시스템을 연동한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주요 솔루션은 ‘아이어스’와 ‘코그플레이’다. ‘아이어스’는 인지과학과 뇌과학에 근거해 인지장애와 인지저하 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 및 케어를 위해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최적화 디지털 치료기다. ‘코그플레이’는 일상에서의 최적화된 뇌건강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브레



인더텍 뇌기능 향상 솔루션 ‘코그플레이(왼쪽)’와 디지털 인지 치료기 ‘아이어스’ 제품군.

인 트레이닝 플랫폼이다.

인지 분야 전문가가 기획한 근거 기반 콘텐츠를 통해 인지 치료를 비롯한 포괄적 뇌 건강 케어가 가능하다.

고도화된 인지 분야 전문성과 우수한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인지 분야 디지털 치료기기로 인정받고 있는 솔루션은 국내외 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병원, 치매안심센터, 시니어케어시설, 아동케어시설에서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디지털헬스케어라운지, 경북대병원 뇌혈관센터 등에 ‘아이어스’를 납품했다.

해외에서는 현재 터키, 이탈리아, 홍콩과 수출계약이 이뤄졌다.

미국 CES와 독일 메디카(MEDICA), 두바이 아랍헬스 등에 참가해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II노베이션과 100만달러 규모 투자지원 협약을 맺는 등 해외 46개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해외 유동기업과 파트너를 구축해 추가품목 승인 등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인지 관련 데이터를 모아 빅데이터화해 디지털 인지기술 분야 선두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인더텍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20년 가까이 축적해온 네트워크 구축 및 보안서비스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토틸 네트워크 솔루션(TNS)으로 국내 공공기관, 대학병원,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천승호 대표는 “자사 솔루션은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해외 바이어를 활용해 올해는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치료제와 혁신적인 플랫폼서비스 등 자사의 우수한 솔루션을 선보여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루트랩

정부·공공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축 주도

‘블록체인 과인공지능(AI), 메타버스 분야 차별화된 기술과 경쟁력으로 정보통신 기술(ICT)시장 블루오션을 탐색하고 개척한다.’



김종현 대표

루트랩(대표 김종현)은 블록체인과 AI·메타버스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창업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기반 배움이력 관리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대규모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 고도화를 수행했다.

AI·메타버스 분야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수행, 로봣 동작 제어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증강현실(AR) 가상스포츠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구축으로 실내용 스포츠 등 가상 교육콘텐츠 서비스를 교육기관에 성공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핵심 기술은 역시 블록체인과 AI·메타버스다.

루트랩은 블록체인의 경우 수년간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쌓았다.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른 형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극소수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AI·메타버스 분야와 관련해 루트랩은 핵심 개발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루트랩 개발자가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는 것이 경쟁력이다. 자체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학습모델 설계와 정제, 가공 툴을 자체 개발했다. 관련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자체 캐릭터 개발과 가상 공간 설계 및 디자인을 통해 메타버스 개발시 고품질 플랫폼을 제공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루트랩 주력 솔루션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블록체인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제 구축한 경험을 기반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사업 다각화와 기술 확보를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퍼블릭 블록체인 이종간 연계 기술 개발 및 블록체인 하드웨어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AI·메타버스 분야의 경우 루트랩은 사람과 로봇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학습모델 설계로 AI산업 분야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

해 가상현실(VR) 기반 스포츠 교육용 콘텐츠를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고객에 기술과 회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기술검증사업으로 태국 내 소비자 플랫폼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같은 사업으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블록체인콘퍼런스에도 참여해 회사 기술력을 알렸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쌓은 서비스 구축 경험을 앞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현 대표는 “현재 4차 산업 물결 속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중기적으로 블록체인·AI·메타버스 분야 시장선점에 나서고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 시장 선도가 돼 ICT 분야 100년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